

영국에서 연극인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독특한 방법

글_김준영(런던 통신원, 런던 ILOVESTAGE Ltd. 프로듀서 junyoung.kim@ilovestage.com)



1950년대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미국인 배우가 있었다. 셰익스피어를 좋아했던 이 배우는 자신이 태어난 미국에 셰익스피어 극장의 짝퉁(?)이 몇 개 있을 뿐 정작 그가 활동했던 런던 템즈강 주변엔 흔적이 미미했음에 큰 실망을 하게되고 1970년을 기점으로 인생의 대 전환을 맞이한다. 세계 최초로 셰익스피어 글로브 극장(Shakespeare's Globe Theatre)을 고고학적으로 규명해 그 자리에 복원하는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사재를 털어 트러스트(Shakespeare's Globe Trust)를 설립하고 약 천만 달러의 기부금을 모았고, 당시 그 지역 카운슬의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부지를 확보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셰익스피어 글로브 극장(1,400석)을 원형과 가장 가까운 방식으로 복원한다. 이후 1997년 6월 12일 영국 여왕이 참석해 그랜드 오픈을 선언하게 되나 안타깝게도 이 배우는 1993년 74세를 끝으로 꿈에 그리던 완공된 극장의 모습을 목격하지 못하고 암으로 사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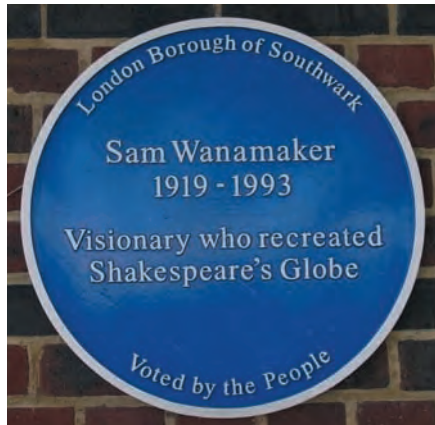
이제는 해마다 수백만의 미국인들이 이를 자랑스러워하며 마치 성지 순례 하듯 이곳을 찾고있는데, 한 미국인 배우에 의해 시작된 여정이 2014년 그의 이름을 딴 목조 극장이 실내에 지어지며 템즈강을 마주하는 방향에 푸른색 동판(Blue Plaque)이 걸렸다. 그의 이름이 바로 샘 워너메이커(Sam Wanamaker)다.

제작년엔 영국을 대표하고 또 우리에게도 익숙한 얼굴의 노배우인 이안 맥클렌(Sir Ian McKellen)과 주디 덴치(Dame Judi Dench)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특별한 행사에 참가했다.

셰익스피어 공연을 다시쓰며 토니(Tony), 그래미(Grammy), 에미(Emmy), 그리고 오스카(Oscar) 상을 모두 가져간 몇 안되는 명배우, 약 75년간 20세기 영국 연극 무대와 영화계를 주름잡았던 배우 존 길구드가 31년간 살았던 런던 시내의 한 주택에 '블루 플라크'를 달아주는 행사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참가한 것이다. 분명 그가 살았던 세대에 수많은 영국인의 마음을 움직였던 훌륭한 배우가 런던 이곳에 살았고 또 이 장소를 스쳐 지나가는 지금의 사람들 기억속에서도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자리하길 바랐을 것이다.

여행객의 입장으로 관광지 위주로 다니다 보면 만나지 못할 수 있으나 런던의 거리를 걷다보면 가끔 건물의 벽에서 이런 푸른색 동그라미 이름표를 만나는 경우가 있다. 명사가 살았던 곳(집)이나 이름을 영원히 남기려는 이런 움직임은 사실 영국 전역에 걸쳐 보여진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일까?

런던에서의 공식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블루 플라크'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18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움직임으로 세계 최초로 윌리엄 이와트(William Ewart)라는 정치인이 지역과 인물을 연결시켜 역사로 기록(또는 기억)하려고 했던 시도였다. 처음엔 유명인사의 개인 주택과 직장을 찾아 부착했고 그 후 '소사이어티 오브 아트(Society of Arts)'와 런던 시청이, 그리고 1986년부터는 역사적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 정부에 의해 설립된 일종의 '문화재청(English Heritage)'에서 관리하고 있다. 수많은 관객을 웃고 울리며 감동을



세계 최초로 셰익스피어 글로브 극장을 고고학적으로 규명해 그 자리에 복원했던 미국배우 샘 워너메이커(Sam Wanamaker)의 푸른색 동판



배우 존 길구드(Sir John Gielgud)의 업적을 기리며 한때 그가 살았던 집에 파란 이름표를 달아주는 행사에 참가한 배우 이안 맥클렌(Sir Ian Mckellen)과 주디 덴치(Dame Judi Dench)

전했던 연극인이란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살았던 집을 사적 이익보다 공적으로 등록하고 보호하며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드는 것을 정부의 책임영역으로 넣었던 것이다.

기준 - 유명 인사는 반드시 아래 기준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 사후 20년이 지나야 하고 소설 속 인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 그의 놀라운 활동으로 인해 우리 삶이 즐겁고 윤택해졌다는 점에 심사관 전원 합의가 있어야 한다.
- 그 건물은 그가 주목받으며 활동하던 시기에 장기간 살았던 흔적이 증명되어야 하고, 국민 모두가 그를 알아보고 당연히 기억해야 할 정도의 명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 만약 외국 국적이거나 방문 귀빈이었을 경우 자국에서의 명성 및 국제적 명성을 함께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푸른색 동판은 한때 건물이 있었던 곳으로 유추해 설치하지 않으며, 알아지지 못할 정도로 변형된 곳이 아니라, 해당 인물이 과거 거주했으며 지금도 그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건물에만 부착한다.
- 푸른색 동판을 부착할 땐 반드시 거리 및 인접한 일반 도로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런던 내 여러 지역에 이사하며 살았던 흔적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곳을 설정해 지정하며, "1인물 1회" 부착을 원칙으로 한다.
- 한 번 심사에 떨어진 인물은 10년 내 다시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인물 선택의 시작은 공식제안서에 앞서 먼저 시민들의 편지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다. '잉글리시 헤리티지' 내 전국에서 모인 9명의 전문 분야 학예사들이 접수된 내용을 분석하고 '블루 플라크'를 성공적으로 이어갈 적임자인지 심사한다. 과거 학예사들의 직업을 보면 대학교수, 시인, 코미디언, 배우, 건축가 등으로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모여 『런던에 살다: 블루 플라크와 그들의 뒷이야기』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이 정책은 현재 지역 사회 관광 자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 대단히 인기가 높다고 한다. 많은 사람이 추천되고 있고, 그에 따라 상세한 연구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마지막 후보들을 선정하는 데만 약 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에게도 동시대 최고의 공연과 당대 스타 배우들을 배출하며 대한민국의 연극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작품과 연극인들이 있을 것이다. 1963년 조직된 한국연극협회는 연극예술의 발전과 복지향상을 목표로 전국 16개 시도 지회, 7개의 해외지부에 약 50,000여 명의 회원과 500여 개의 극단 단체회원을 산하에 두고 있다(협회 홈페이지 참고). 한국 연극 환경 발전에 기여했던 우리 연극인들에게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시 문화의 일환으로 그들을 평생 우리 삶속에서 기억할 수 있도록 '블루 플라크'의 한국 버전이 있으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사진 @ ilovestage image library